



신혼부부·1인가구 전용... 합리적 가격

인덕원 퍼스비엘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인덕원 퍼스비엘' 49~84㎡ 2180가구 중 5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료 ▲49㎡ A 215가구 ▲49㎡B 99가구 ▲59㎡A 90가구 ▲59㎡B 144가구 ▲74㎡ 12가구 ▲84㎡ 26가구다.

전 세대가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세대대를 위한 전용 59㎡ 이하 소형평형부터 74~84㎡ 중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대부분을 3~4베이 판상형으로 인덕원 퍼스비엘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886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자금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인덕원 퍼스비엘의 향후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6월 1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인덕원 퍼스비엘은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

게 다양한 테마의 조경을 갖춘 공원형 단지로 선보인다. 단지 내 상쾌한 개방감을 불어넣는 '그랜드비스타'를 비롯해 수목이 어우러진 '에잇센셜가든' (Eightessential Garden)이 조성된다. 또 흐르는 물을 배경으로 돌 조형물이 어우러진 '돌과 물의 풍경'과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액션 그라운드' 등도 갖춰진다.

이외에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테마 놀이터와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북&키즈카페, 독서실, 다목적 멀티룸, 시니어클럽 등 주민 편의시설도 곳곳에 들어선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브랜드·중소형·대단지 분양의 3요소를 갖춘 만큼 인근 거주자 외에 수도권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덕원 퍼스비엘은 평촌신도시와 인덕원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데다 상품성까지 갖췄다"고 말했다. ☎ 1599-8707



원스톱 쇼핑 시설·뛰어난 도로 교통망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옛 동부지법, KT지사) 자양 1재정비촉진지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74~138㎡ 1063가구 중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 내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판매시설을 비롯해 8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172실 규모의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282실 규모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가장 큰 장점은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에 동서울종합터미널도 위치하고 있다.

뛰어난 교통망뿐만 아니라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서

한강변 조망도 가능한 만큼 향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일반분양은 ▲74㎡ 88가구 ▲84㎡A 195가구 ▲84㎡B 44가구 ▲84㎡C 18가구 ▲84㎡D 16가구 ▲101㎡A 84가구 ▲101㎡B 26가구 ▲101㎡C 24가구 ▲124㎡ 44가구 ▲138㎡ 90가구 ▲125㎡ P 2가구 등 중소형 주택부터 중대형과 펜트하우스 등 다양하다.

인근 다양한 개발호재들로 뛰어난 미래가치도 점쳐진다. 먼저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까지 3.8km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다.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 개선이 기대된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도 현재 규모의 1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판매 및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2024년 착공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서초구 서초동 르엘갤러리 내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1533-1616



줄어든 아 장기적 집값 알짜단지

아파트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각 건설사가 펼치는 중이다. 특히 재개발·가트 신규사업 자체를 줄이고 있다. 공급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면 다시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에 나설 볼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 미래가치를 따져보고, 자금조달



설악산 인접... 인근에 양양역 신규 개통

양양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일원에 들어서는 '양양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59~129㎡ 279가구를 분양한다.

세부적으로 ▲59㎡ 48가구 ▲84㎡A 118가구 ▲84㎡B 41가구 ▲84㎡C 44가구 ▲84㎡D 25가구 ▲99㎡ 1가구 ▲전용 119㎡ 1가구 ▲129㎡ 1가구 등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금호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양양 남대천과 설악산 국립공원이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양양 남대천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양양 종합운동장, 현산공원 등 다수의 공원 및 운동시설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동해고속도로를 비롯한 7번 국도, 44번 국도와 인접

해 전국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다. 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과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등도 근처에 자리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동해북부선 양양역(예정)이 신규 개통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을 출발해 양양, 속초, 고성을 거쳐 제진까지 연결되는 111.7km의 단선 전철이다. 이 가운데 양양역(예정)은 양양읍 송말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으로 양양종합버스터미널과 인접해 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지난 2020년 강원도는 이곳의 상업지역 내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곳은 1980년대에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바 있다.

혁신평면도 도입된다. 전용 59㎡에는 알파룸이 조성될 예정으로 주거공간의 실용성을 더할 계획이다.

한편 건본주택은 강원도 양양군 연창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 1800-7640



우수한 교육환경... 중도금 무이자 제공

대구 내당지구 두류스타힐스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지구에 들어서는 '두류스타힐스'를 일반분양 중이다. 서희건설이 책임시공을 맡은 두류스타힐스는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6개동과 지하 4층~지상 36층 오피스텔 1개동 등 7개동 규모다. 84㎡ 아파트 201가구를 공급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태"라며 "해당 단지는 우수한 상품성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1500만원 정액제 조건 등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반경 1km 이내에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등 9개의 초·중·고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서문시장, 서구청,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각종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다. 대구 최대 녹지 공간인 두류공원을 비롯해 내당공

원, 강상못공원 등 공원 시설도 많다.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5베이(BAY) 설계(일부 호실)가 도입돼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주방 팬트리 및 대형 슬라이딩 욕실장 등 공간 활용을 높인 설계로 여유로운 주거 생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일괄 소등 스위치와 스마트 디지털 도어록, 홈 네트워크 등 입주자의 편의를 극대화시켜 줄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4377억원, 영업이익 2061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업계가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발판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는 서희건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형 첨단 주거공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발전, 환경, 에너지, 각종 시설관리 등 다방면의 신사업, 그리고 교회·학교·병원을 짓는 특수건축에 집중하면서 선진화된 기술혁신으로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